

'묻혀진 황금'을 캐내는 성숙한 사관

「스페인 문학사」 펴낸 김현창 교수



문학사 기술에서 요구되는 균형잡힌 사관으로 스페인문학 천년의 역사를 꼼꼼히 추적, 정리해낸 이 책에서 단절론적 입장보다는 통일된 전반적 흐름 속에서 시대별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는 김교수는, 서구문학에 나타난 동양사상적 배경 '읽어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김현창 교수.

애매한 개념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이 사전적 정의를 눈앞에 펼쳐놓고도 사람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느낀다. 그것은 '문학'이나 '역사'가 또다시 어려운 개념정리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학사 기술은 그 방대함과 균형감각에 있어 문학과 역사 상호간의 확대와 응집을 동시에 요구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국의 문학사를 기술하다고 할 때 더해지는 기술자의 조건은 훨씬 복잡해진다.

김현창 교수(55,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에게 있어 한 나라의 문학사를 논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학적 전통과 사유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조력과 꿈, 환상까지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스페인문학 천년 역사를 꿰뚫는 사관

국내 서반어권 학자 제1세대로 꼽히는 김교수가 최근에 상재한 「스페인 문학사」(민음사)는 이러한 '눈'으로 스페인문학 천년의 역사를 꼼꼼히 추적, 정리해낸 귀중한 자료집이자 연구서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우선 史觀이 요구하는 인간의 나이에 대해 말한다.

"이제야 문학사를 기술하기에 적당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관이 생길 만한 나이가 된 거죠. 사관은 단순한 이론습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체험이 보태져야만 온전한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낯은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기호테나, 좀더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오르테가나 우나무노, 옥타비오 빠스, 아니면 작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카밀로 호세 셀라 정도가 스페인문학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스페인은 분명 다소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그 나라에 대한 '지명도'가 결정되곤 하는 이즈음의 경향 때문이다.

김교수가 당시에는 더욱 오지로 느껴졌을 스페인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한다. 막 6·25를 거치고 경제학이나 법학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에도 그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신설된 외대 서반어과에 입학했다. 외국어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스페인문학이 '묻혀진 황금'임을 느끼고 유학길에 오른다. 원래 숫기가 없었던 그의 성격은 "공부 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학생살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유럽 문화의 기저에는 동양문화의 사상적 배경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고 외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본질적인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맞물리며 진행되는가, 복잡한 일상에 섞여가며 살아가는 한 개인이 학문을 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하며 또 그러한 작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기였습니다."

6여년의 작업을 거쳐 완성된 이번 저서의 서문에서 김교수가 자신의 문학사 기술을 오르테가의 眺望主義에 비유한 것도 이러한 체험에 기인하고 있다.

"사물을 조망할 때, 어떤 사물의 본질은 그 답이 유일한 하나의 답이 아니고, 그 사물을 조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 그러나 누구의 것이 오류라 할 수 없는, 상이한 면모가 있을 뿐이다."

그가 말하는 스페인문학의 특성은 한마디로 강한 '독창성'이다.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스페인은 알려진대로 정열적이고, 다혈질적이면서 한편 낙천적이다. "앉아서 10분 이상 견디지 못하는 기질"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백년마다 한명꼴의 뛰어난 작가를 배출해내는 '寡産'이면서도 한 작가가 사흘에 한 작품씩을 써내기도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전8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스페인문학의 태동기인 11세기 중세문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영국에게 그 영광을 물려주기 이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황금세기'인 16·17세기 문학, 이후 계몽주의·신고전주의·낭만주의·사실주의 등 다양한 사조를 거치게 되는 18·19세기의 문학, 식민제국으로서의 종말을 고하고 국민의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모색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청한에서 펴낸 朴範信의 책들

이 눈부신 봄날, 당신 가슴에도 남몰래 명정한 언어의 작가 박범신의 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한채를 지어보십시오.



잠들면 他人

상처없는 사랑이 있다면 이승에서의 꿈도 고단하지 않으리라
깊은 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네, 일 지는 소리, 한 점씩 추억에 불을 밝혀도 돌아누워 잠들면 이별인 것을, 돌아누워 잠들면 타인인 것을, 잠들어도 타인되지 않는 세상, 아무리 멀리 있어도 따뜻한 그리움 하나로 사실은 함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나는 그림다.

• 신국판 / 306면 / 3,500원

불꽃놀이

성공한 중년남자가 어느날 아침 홀연히 느끼는 삶에의 허무, 그리고 거리에서 거리를 부랑하는 스무살의 여자가 꺼안은 찬란하고 고통스런 불꽃축제.

아, 아, 내가 겪었던 것은 무색무취의 연탄가스 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부항의 작은 방에서 밤마다 뒤척이며 들었던 내 누굴의 없는 소리,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어느 한낮에 내 어깨가 경험했던 이상한 환기를 당신은 이해하시겠습니까?

• 신국판 / 424면 / 4,000원

蜜月

맑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의 가슴에 사슴처럼 반짝이며 쌓여지는 수많은 말들을 알아들었다. 그들은 <함께 한 지점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한다는 내 고백에 나는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더이상 예언의 사슬에 묶여 있던 것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예언 따위에 굴복하진 않겠다.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더이상 사랑함에 있어 나를 억누르진 않을 것이다. —〈작가의 말〉에서

• 신국판 / 318면 / 3,400원

우리들 뜨거운 노래

언젠가 봄은 또 올 것인가. 시린 겨울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노래. 무인정 뻗어 있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시간들, 우주적 넓이와 24색 크레파스를 다 사용해도 그려낼 수 없는 다양함이 펼쳐진 예측불허의 인생탐험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동등동, 푸르푸르한 사랑의 북소리를 울리며 엮는 신명 한마당.

• 신국판 / 342면 / 3,400원

나의 사랑 나의 결별

황야의 도시에서 산성화되기 시작한 가슴들을 끌어안으며 절망하고 반역하고 쓰러져 놓는 젊은 우리들, 우리에게 지금 칼날같은 풀잎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알맞은 습도, 맑은 햇빛, 부드러운 바람이 필요하다.

• 신국판 / 306면 / 3,000원

청한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7-1 전화 577-2341~3

이르는 모더니즘 문학, 그리고 다양성과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면서 스페인문학 제2의 전성기를 맞은 20세기 전반기의 문학과 아직 정의하기 어려운 현재의 문학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흐름이 수많은 인명과 작품들을 등장시키면서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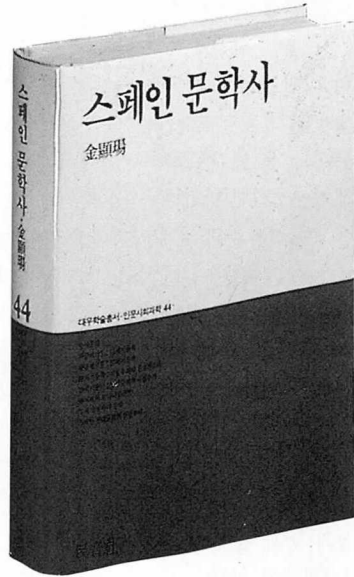
스페인문학 전공자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되도록 한자의 사용을 피했다는 김교수는 각 시기별 시대개관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 속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사관이 포용력 있게 융해되면서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문학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일례로 논쟁의 대상이 된 1900~1939년 사이에 나타난 여러 문학세대들에 대한 시대구분 문제에 있어 김교수는, 여러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철저한 단절론적 입장보다는 이전 것을 폐기함이 없이 감싸안으면서, 통일된 전반적 흐름 하에서 새로운 태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동시대성과 문화풍토의 공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문학 속의 동양사상 읽어내기

그동안 간헐적으로 소개되어 왔던 스페인문학의 전체적 모습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낸 김교수는 한편, 유학시절부터 그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서구문학에 나타난 동양사상적 배경의 '읽어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스페인문학에 있어서 동양사



상의 영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실제 유럽 대학가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이나 주역, 불교서적 등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양사상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적 배경의 서구사상에 그들 자신이 식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선각자'들에 의해 작품에 수용된 동양사상을 그들의 사상적 배경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교수는 동양인의 눈으로 서구작품을 바라보는 작업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사명 의식'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대학에서 석사 학위논문 준비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로망 롤랑과 키플링을 인도사상으로 조명해낸 그는, 곧이어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후기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을 대표하는 환 라몬 히메네스와 타골을 비교분석한 그는, 이 논문에서 특히 히메네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神'을 동양적인 '道'의 개념으로 해석해냄으로써 서반아 문학가들조차도 그 난해함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히메네스문학의 핵심을 밝혀냈던 것.

"논문을 준비하면서 히메네스 생각을 직접 찾아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보니 우리네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보다 더 많은 동양관계 서적이 있더군요."

현재는 서구문화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 면에서 '프리미엄'을 얻고 있지만, 분명 동양문화에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하는 김교수는 10여년 전부터 '동양문화연구소'의 일을 맡아오고 있기도 하다.

그가 노심초사하여 완성한 논문들을 모은 「現代世界文學 속의 東洋思想」도 바로 이 연구소에서 이룩해낸 소중한 업적이다. 동양의 대표적 사상인 유·불·선을 비롯, 힌두교가 서구문학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한편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이땅에서 동양사상이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는 김교수는, 71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사서삼경을 '다시' 공부하는 등 멀고도 험한 '正道'를 아직도 밟고 있다.

한국시의 번역작업에도 몰두

한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우나무노의 「안개」 등의 '정통번역'을 선보이면서 한국시

의 번역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는 작년에 미당의 시를 번역, 해외에 소개하기도 했다.

73년 서울대에 서어사문학과가 창설되면서 '타'를 옮긴 그는 "이제 초반기는 넘긴 셈"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다. 의욕적인 모습으로 출발했던 초창기의 전통이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스페인 사람들을 닮은 학생들의 정열적인 기질 덕분인 것 같다며 웃는 김교수의 얼굴에는, 제자들의 얼굴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함'이 함께 깃들여 있다.

다시 그의 이번 저서의 서문을 펼쳐보면, "원래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善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善惡과 高低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야말로 道를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대답이 되지만" 학자의 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침묵에의 욕구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암시가 행간 속에 그득하다.

—정소연 기자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출판물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국제저작권 계약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좋은 책· 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저작권회사를 만나보십시오!

바다저작권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습니다.










전화 : 312-9135, 362-3138
팩시밀리 : 393-9786

121-010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빌D/D 1702호